



지자체 최초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전북도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상한 가운데 24일 송하진 도지사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더민주, 현역의원 10명에 공천심사 배제 사실 통보

## 전정희 의원, 컷오프 1차 대상자로

(익산출)

문화상·노영민·백군기·홍익락·임수경 등

전 의원, 공천 가능성 높았던 상황 속 의외 결과  
김연근·김상기 등 국민의당 후보 행보 바빠질 듯

2차 컷오프 3인이상 50%·초재선 30% 예정  
도내 현역의원 추가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

전정희 의원(익산출)이 더불어민주당 당(이하 더민주) 1차 컷오프 10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더민주 소속 현역의원 10명에게 공천심사 배제 사실을 통보했다. 컷오프 대상에는 문화상(경기외정부장), 신계륜(전남함평), 유인태(충북제천), 노영민(충북청주), 송호창(경기의왕과천), 전정희(전북익산출) 등 6명의 지역구 의원과 백군기, 홍익락, 김현, 임수경 등 4명의 비례대표가 포함됐다. 도내 정기는 익산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전정희 의원의 컷오프에 예상 밖이라는 시각이다. 당초 전 의원을 배제한 전북출신 의원은 2~3명이 거론돼 있었다. 특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뒤편에서 가장 공천 가능성이 높

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외라는 반응이다. 전 의원의 타정당 후보와의 경쟁률과 지지율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당초 '컷오프' 대상 의원들에게 친전방식으로 전할 예정이었지만 직접 전화통화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제2차 컷오프도 3인이상 50%, 초재선 30%가 예정돼 전북 현역의원 추가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추가 심사 대상자는 1차 대상자처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소속의원 9명 가운데 컷오프된 전정희 의원을 제외하고 전북 3선 출신은 최규성 의원과 김춘진 의원, 재선은 이춘석 의원이며 나머지 김성주, 김윤덕 이상직, 강동원, 박민수 등 5명은 초선의원이다.

이번 컷오프가 제20대 총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선거관 자체를 뒤바꿀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특히 익산을 선거구의 경우 현역의원인 전정희 의원이 탈락함에 따라 전락공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김연근 조배숙 김상기 등 국민의당 후보들의 행보도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컷오프 현역의원들은 20대 총선에서 더민주 후보로 나설 기회조차 박탈된다. 출마를 포기하거나 무소속 또는 국민의당이 유일한 선택이다. 문제는 국민의당의 수용여부. 국민의당은 이들 대상자를 받아들여 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당이 낡은 정치 청산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있고 컷오프 대상자를 영입하면 기존 정치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을 놓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현역의원들이 일부 예비후보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쉽게 받아 들일수는 없을 것이다"며 "하지만 지난 22일 전정배 국민의당 대표가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사람이나 아

니면 패권과 싸우다 희생된 사람이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만큼 두고 볼일"이라고 말했다. 도내 정기는 이번 컷오프를 두고 본질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 다툼 아니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람만 바뀔뿐이지 정치적 절망감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결국, 총선 정국에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왔던 물갈이론, 그리고 공천으로 인한 지도부와 의원간의 갈등도 이번이라고 별 다를 것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측통은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밥그릇 챙기는 공천 싸움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이라며 "컷오프 등 당당의 공천 싸움, 물갈이보다 전북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지역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정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 매일 INDEX
- 3면 아권,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 4면 전북인구이동, 2010년 이후 감소세

## '무풍지대' 사립학교 비리 척결될 수 있나

### 도교육청, 내달부터 일상감사 학교 확대

무풍지대였던 사립학교 내 비리가 척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달부터 일상감사 대상을 사립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주요 계약 업무와 정책 신규사업, 20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일상감사는 각급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해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사업계획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일상감사는 그동안 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

상으로 진행해왔다. 이 같은 일상감사에 사립학교가 포함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내달 1일부터며 사립 유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내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는 5,000만 원 이상의 교복·실험실습기자재 등 물품 구매와 시설공사를 비롯해 2억 원 이상의 방과후학교, 통합버스 임차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 계약 시 사전에 일상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상감사 대상은 이 외에도 10억원 이상 주요 정책 신규사업과 건당 2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인·허가 등 규제업무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도내 초·미세먼지 주의보 모두 해제

#### 당초 예상보다 빨라

지난 23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전북지역에 발령됐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당일 오후 5시와 6시를 기점으로 해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한때 전주시 팔복동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시간 평균 94㎍/㎥까지 치솟았으나, 오후부터 차고 깨끗한 기류를 포함한 북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국외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예

상보다 빠르게 해소됐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 수준이고, 남하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아외환 등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전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http://air.jonbuk.gok.kr)을 통해 예보와 경보상황을 지켜보며, 건강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 정 의장, 선거구 확정안 오늘까지 제출요청

#### 여야 견해차 커 두고봐야

여야가 선거구 확정 기준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영수)가 24일 이를 채택하라는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확정안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으로부터 확정 기준을 송부 받은 후 오후 5시부터 9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통·폐합 및 분구 지역구에 대한 경계조정 등을 진행 중이다.

정 의장은 전날 확정위에 25일 낮 12시까지 선거구 확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확정위가 25일까지 선거구 확정안을 의결, 국회로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확정안은 확정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되는데 위원들간 견해가 엇갈리려는 듯이 거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확정위 관계자는 "과연 의결될 수 있을지는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임실군이 최고의 품질을  
'농축산물'

열매의 고장 임실이 빛어낸 보물, 농축산물!

www.imsil.go.kr